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한 심리적 차원의 탐색: 개인차척도법과 다차원 퍼기의 적용

JIN WEN JIE¹⁾ 정 지 연¹⁾ 한 유 화^{1),2)}

¹⁾충북대학교 심리학과

²⁾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은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및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학생 175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다차원척도법 모형 중 개인차척도법과 다차원 퍼기를 적용하여 사람들이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도출된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요인들(‘피해호소의 적극성’,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웃차림의 단정함’, ‘피해추정 시간’)을 조작하여 제작한 그림 자극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에게 피해자다움 차원에서의 유사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을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할 수 있었다. 2차원 공간에 군집화된 그림 자극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을 비교한 결과, 참가자들은 이 군집들이 ‘거짓말하는’ 정도와 ‘차분한’ 정도에서 다르다고 지각하였다.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을 반영하는 차원의 중요도는 성별과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피해자다움 평가에 고려되는 네 요인의 중요성 서열을 평정한 자료를 이용한 다차원 퍼기 분석에서도 성별에 따른 중요성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웃차림과 밤늦은 외출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피해자다움의 평가가 성별과 성폭력 통념 수준에 상관없이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이 차원이 피해자의 진실성 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피해자다움,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성폭력 통념, 개인차척도법, 퍼기

†교신저자: 한유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
대로 1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yuhwahan82@gmail.com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중들의 사회적 시선도 여전히 따뜻하지 않은 실정이다(대검찰청, 2021; 권인숙, 2015). 사람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자다운지와 관련되는데,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자다움(victim-likeness)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즉,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다(허민숙, 2017). 피해자다움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실험적으로 조작하고 조작점점 차원에서 제시된 피해자의 모습이 얼마나 피해자다운지를 참가자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정하거나(박지선, 강은영, 2021; 이에림, 박지선, 2021; 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질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해 고찰하였다(권인숙, 2015; 박형민, 2018; 허민숙, 2017). 본 연구는 유사성 자료(similarity data)에 기초하여 유사성 판단에 사용되는 심리적 차원을 탐색하는 다차원척도법(Multi Dimensional Scaling: MDS) 중 개인차 척도법(individual difference scaling: INDSCAL)과 서열 평정 자료를 사용하는 다차원 퍼기(multi-dimensional unfolding)를 적용하여 일반인들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지각할 때 어떤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확인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특성

2021년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30,105건으로 지난 2019년의 32,029건보다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2011년-2020년)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증가(22,168건-30,105건)하는 추세였다. 성폭력 범죄의 12개 하위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강간은 2011년 4,425건에서 2020년 5,825건으로 증가하였고 강제추행은 8,535건에서 14,48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

러한 증가 양상은 한국의 성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범죄 중 특히 성폭력 사건은 수사 단서가 대부분 피해자 또는 타인의 신고(약 80%)인 점(경찰청, 2019)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자신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처음 인지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만이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사실판단을 어렵게 한다(황정익, 2007).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이해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 및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 자체, 사건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이 사건과 관련된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판단과 피해자다움

피해자에 대한 판단자의 피해자다움 지각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김민정, 양정운, 2015; 정찬영 등, 2020; 허민숙, 2017; 허선주, 조은경, 2012). 피해자다움은 '이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이나 모습에 대한 일련의 정형적인 기대나 통념으로 정의된다(허민숙, 2018). 사람들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사건의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김은지, 박지선, 2011;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이러한 책임 전가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권인숙, 2015; Cappelletti & Arriaga, 2008; McGregor, Wiebe, Marion, & Livingstone, 2000; Schuller, McKimmie, Masser, & Klippenshine, 2010). 한 예로, 한 여성에게 호감을 보이며 동승할 것을 제안한 외제차 운전자가 차에 올라탄 여성을 강간한 사건에 대해 한밤중에

모르는 남자를 믿고 차에 탔다는 것은 피해 여성이 강간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경향신문, 2010. 03. 23).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의 잘못을 간과하여 성폭력 범죄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박지선, 김정희, 2011; 이석재, 1999),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김범준, 2007; Bongiorno, McKimmie, & Masser, 2016; Lonsway, & Fitzgerald, 1994). 즉,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 지각은 사람들의 피해자에 대한 판단은 물론, 가해자 및 사건의 판단(양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llingmo, Wessel, Eilertsen, & Magnussen, 2008).

이처럼 피해자다움 지각이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판단자들의 피해자다움 지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단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사건 시나리오나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다움을 조작한 후 지각된 피해자다움과 사건 및 사건 당사자에 대한 판단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다(예, 박지선, 강은영, 2021; 이에림, 박지선, 2021; 정찬영 등, 2020; Schuller et al., 2010). 또한,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요인들은 연구에 따라 피해자의 주체성(정찬영 등, 2020), 피해자 감정적인 표현을 했는지 여부(박지선, 강은영, 2021)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연락을 했는지 여부(이에림, 박지선, 2021)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연구에서 조작되거나 제안되는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요인들은 사회적 통념이나 이론적으로 추론된 것이었다. 즉,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적인 목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의 피해자다움 지각에 관여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피해자다움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Buddie와

Miller(2001)는 참가자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신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식을 적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나약한’, ‘우울한’, ‘수치스러운’, ‘스스로를 비난하는’,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은’, ‘문란한’ 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이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자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연구의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며, 다음과 같은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의 주체성(agency)과 관련된 요소들이다(Bosma, Mulder, Pemberton, & Vingerhoets, 2018). 사람들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했는지(Balemba, Beauregard, & Mieczkowski, 2012; Cook, David, & Grant, 2001),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지(Stewart, Dobbin, & Gatowski, 1996),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Bongiorno et al., 2016), 자신의 피해를 확실하게 주장했는지(Petty, Briñol, & Tormala, 2002)에 따라 피해자다움의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람들은 피해자가 덜 피해자답다고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것으로 기대하는데(Benedict, 1993; Thapan, 1997) 그런 기대와 달리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이 덜 피해자다운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Lens, van Doorn, Pemberton, & Bogaerts, 2014).

둘째는 성폭력 피해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요소들이다(Nitschke, McKimmie, & Vanman, 2019). 피해자가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거나(Buddie & Miller, 2001),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였는지(McGregor et al., 2000), 몹시 흐느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는지(Klippenstine & Schuller, 2012; Winkel & Koppelaar, 1991), 또는 사건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는지(Hills & Thomson, 1999; Jordan, 2001)에 따라서도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의 지각에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오히려 사람들은 피해 경험을 과소추정하거나 피해의 진실성을 낮게 평가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Kaufmann, Drevland, Wessel, Overskeid, & Magnussen, 2003), 이 결과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수록 피해자다움이 더 높게 지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는 피해자가 소위 성폭력 피해의 원인(예, 짧은 치마 등의 옷차림, 피해자가 밤늦게 외출)을 제공했는지에 관한 요소들이다. 박형민(2018)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할 때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유흥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지, 술에 취한 상태인지 등은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반인들 역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성폭력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권인숙, 2015; Cassidy & Hurrell, 1995; Dull & Giacomassi, 1987; Workman & Orr, 1996). 따라서 일반인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게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 여성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했었는지(양동옥,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Cassidy & Hurrell, 1995; Workman & Freeburg, 1999), 술을 마셨는지(Cameron & Stritzke, 2003; Sims, Noel, & Maisto, 2007), 늦은 밤에 혼자 외출한 것인지(Anderson, 2007), 피해 사건 발생 전에 일탈행위를 했는지(김보경, 김범준, 최종안, 2020) 등에 따라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거나 일탈행위 등을 했다면 피해자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더 많이 부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모두 피해자가 피해

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이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는 피해자가 전통적인 여성상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Capezza & Arriaga, 2008; Masser, Lee, & McKimmie, 2010). 사람들은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전통적인 여성상과 부합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Howard, 1984), 실제로 전통적인 여성상에 덜 부합하는 피해 여성일수록 덜 여성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피해자의 상과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자다움도 덜 지각하게 된다(Capezza & Arriaga, 2008).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나온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Masser, Lee, & McKimmie, 2010; Schuller et al., 2010)와 피해 여성이 커리어 우먼인 경우(Capezza & Arriaga, 2008)에 피해자의 진술을 덜 신뢰하고 피해자에 대해 더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여성상에 덜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해 고통을 더 적게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경험의 진실성을 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Schuller et al., 2010). 이와 같은 결과들은 피해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상과 부합하는지가 피해자다움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피해자다움의 지각과 관련된 이러한 요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구성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피해자다움’이란 이 요인들의 조합으로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요소들을 다양하게 조합한 특성을 가지는 피해자를 그림으로 묘사하여 일반인들에게 제시하고, 그림 자극들이 ‘피해자다움’ 차원에서 가지는 유사성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판단과 성별, 성폭력 통념

성폭력 피해자 관련 연구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자의 성별과 성폭력 통념(myths about sexual violence)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성폭력 통념은 성폭력 피해의 발생에 관해 일반인들이 사견,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서(예, “몸가짐이 바르지 못한 여성들이 대개 성폭력을 당한다.”; Burt, 1980)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을 정당화하고 가해 행위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부정하게 하는 태도와 신념이다(Lonsway & Fitzgerald, 1994). 성폭력 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경향이 있고(김재은, 김지현, 2016), 이 통념의 수용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피해자의 피해 주장을 덜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박지선, 강은경, 2021), 피해자를 더 비난하며(이예림, 박지선, 2021), 피해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였다(Cohn, Dupuis, & Brown, 2009; Grubb & Turner, 2012; Klement, Sagarin, & Skowronski, 2019). 심지어 경찰들에게서도 성폭력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폭력 통념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은 경찰일수록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박지선, 김정희, 2011; 장미정, 조은경, 2004). 성폭력 통념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 및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바 본 연구는 개인의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과 피해자다움 평가에 관련된 차원간의 관련성 또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차원척도법

사람들이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차원을 탐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할 것이다. 다차원척도법은 사람들이 다양한 판단 대상을 어떤 소수의 잠재적 차원(latent dimension)을 통해 유형화하는지를 시각적

으로 밝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법이다(박광배, 2000; Schiffman, Reynolds, & Young, 1981). 다차원척도법은 판단 대상들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유사성(similarity; 응답자가 직접 평정한 자극들 간의 유사한 정도) 혹은 근접성(proximity; 연구자가 자료로부터 산출해낸 유사성 관련 지수, 예를 들면 상관계수) 자료에 기초하여 도출된 다차원 공간에 자극들을 배치한다(Kane & Trochim, 2007). 연구자들은 배치된 자극들의 특성 및 추가로 수집된 의미(형용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다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각 차원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다차원척도법 모형은 다차원 공간의 차원 가중치가 개인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는 Torgerson의 고전적인 모형(Torgerson, 1952)과 개인에 따라 각 차원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고 가정하는 개인차척도법(Carroll & Chang, 1970), 선호서열을 분석하는 다차원 퍼기(Carroll, 1972; Coombs, 1964)의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다움 평가와 다차원척도법의 유용성

피해자다움 및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실험(김보경 등, 2020; 양동욱 등, 2012;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정찬영 등, 2020; Ayala, Kotary, & Hetz, 2018; Bongiorno et al., 2016; Schneider, Soh-Chiew Ee, & Aronson, 1994; Stromwall, Alfredsson, & Landstrom, 2013; Workman & Freeburg, 1999), 설문 조사(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이명신, 양난미, 2012; Ask, 2010; Balemba, Beauregard, & Mieczkowski, 2012; McGregor, Wiebe, Marion, & Livingstone, 2000), 질적 분석(권인숙, 2015; 박형민, 2018; Buddie & Miller, 2001; Campbell, Menaker, & King, 2015) 및 기존연구 개관(Grubb & Turner, 2012; Sleath, & Bull, 2017; Randall, 2010; Van der Bruggen, & Grubb, 2014)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법 중 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지각된 피

해자다움과 관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변인들과 피해자다움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이론적 가정이 실제로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확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는 피해자다움 지각에 관련된 요소들을 자료로부터 파악하는 탐색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인적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정되지 않거나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변인 및 관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고, 질적 연구를 통한 탐색은 응답자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변인 및 관계를 탐지할 수 없다. 다차원척도법은 유사성 또는 서열 평정 자료를 분석하여 잠재적 차원을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한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 차원에 대한 단서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참가자는 피해자가 밤늦게 외출했다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더 피해자답다고 느낀다고 솔직히 응답하기를 꺼릴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들에게 명시적인 피해자다움 평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잠재적인 차원을 추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차원척도법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구문제

피해자다움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한 연구들을 보면, 연구자들이 사람들의 피해자다움 지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피해자다움 지각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요인 중 일부(예를 들면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생활 방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는 누군가 그 요인과 피해자다움을 관련지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자다움과 관련 요인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이 피해자

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은 자극 간 거리에 기초하여 자극들을 다차원 공간에 배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극 간 상대적 위치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피해자다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차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작한 그림 자극을 제작하여 수집한 자극 간 유사성 평정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람들이 피해자다움을 평가할 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했을 때 그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도출될 것이고, 본 연구에서 조작하지 않은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다차원 공간에 배치된 자극들의 공통점을 파악함으로써 그 요인이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만, 피해자다움 평가에 관여하는 주요 요인을 고려하는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를 가정하는 개인차 척도법을 적용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차원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각 그림 자극에 대한 형용사 평정치를 사용하여 형용사 평정치와 각 그림 자극의 다차원도면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형용사들은 사람들이 다차원도면 상에 군집화된 그림 자극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즉, 그림 자극의 군집에 따라 형용사 평정치를 평균하여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피해자다움 및 형용사 평정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개인차척도법으로 도출된 각 차원에 대한 개인별 가중치는 각 개인이 제시된 그림 자극들을 피해자다움 차원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차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를 반영한다. 피해자다움 평가를 측정하는 연구들에서 성차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정찬영 등, 2020), 현재까지 피해자다움 평가 자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고, 성폭력 사

건에 대한 판단에는 성별과 성폭력 통념이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라 개인별 가중치의 차이가 관찰되는지 확인함으로써 다차원척도법으로 도출된 차원이 피해자다움 평가의 성차 및 성폭력 통념 수준 차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조작된 요인들을 중요성 순으로 평정한 서열자료에 대한 다차원 퍼기를 수행하여 동일한 다차원 공간에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요인들과 각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그 양상이 개인의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라 다른지 파악하였다.

예비 연구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다움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고자 하므로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요인들을 글로 제시되기보다는 시각적 자극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모습을 글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문장 수준의 긴 글이 필요하고 특정 단어가 반복적으로 자극에 포함되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글을 심상화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각 그림에서 조작하여 묘사할 요소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예비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 평가에 이 요소들을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차원척도법을 통하여 도출될 심리적 차원의 의미 해석을 위해 사용할 형용사를 선별하였다.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요인 파악

본 연구는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다음 일곱 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1)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반항하였는지 여부 (Balemba, Beauregard, & Mieczkowski, 2012), 2) 경찰에 신고(Stewart et al., 1996) 또는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Bongiorno et al., 2016) 여부, 3)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Jordan, 2001) 또는 몹시 흐느끼면서 우는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는지(Winkel & Koppelaar, 1991) 여부, 4)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는지(McGregor et al., 2000) 여부, 5)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발생의 원인(예, 짧은 치마를 입었음)을 제공했는지(권인숙, 2015; 박형민, 2018; Cassidy & Hurrell, 1995; Dull & Giacopassi, 1987; Workman & Freeburg, 1999; Workman & Orr, 1996) 여부, 6) 피해자가 전통적인 여성상에 부합하는지(Capezza & Arriaga, 2008) 여부, 7)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였는지(Grubb & Harrower, 2008; Johnson et al., 1989) 여부. 이 요인들은 그림으로 묘사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일곱 개의 요인 중 시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요인은 제외하고 통합이 가능한 요소들은 서로 통합하였다.

일곱 개의 요인 중 내용적으로 유사하여 하나로 통합된 요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요인으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고통의 호소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일곱 개의 요인 중 첫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요인은 시각적으로 묘사된 상황 및 피해자를 보는 것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요인을 선별하여 그림 자극에서 조작하였다: 1)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여부, 2)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건 발생 후 신체적 고통(예, 타박상 등) 및 심리적 고통(예, 트라우마, 우울 등)을 호소했는지 여부, 3)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성폭력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첫 번째 요인

은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나타내므로 '피해호소의 적극성', 두 번째 요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외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나타내므로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발생 원인제공 여부는 주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늦은 시각의 외출 등을 포함한다(권인숙, 2015; 양동욱 등, 2012; Cassidy & Hurrell, 1995; Maurer & Robinson, 2008). 피해자의 옷차림과 피해추정 시간은 동시에 조작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옷차림의 단정함'과 '피해추정 시간'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그림 자극의 제작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피해호소의 적극성,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옷차림의 단정함 및 피해추정 시간을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요인으로 선별하였고, 이 요인들을 모두 두 수준(낮음/높음)으로 조작하여 그림 자극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네 가지 요인을 모두 두 수준으로 조작한 이유는 각 요인의 수준 수가 1 증가할수록 전체 실험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자극의 수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반응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¹⁾ 또한, 각 요인의 중간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간 수준의 속성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의 개인차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네 가지 요인을 두 수준으로 조작한 후 조합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그림 자극은 총 16개(2⁴)였다. 열여섯 개의 그림 자극은 모두 성폭행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조작한 네 가지 요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 부분이 있었다. 네 요인이 모두 '낮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 자극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적극적이지 않고, 고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고, 새벽 시간에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모두 '높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적극적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시각적으로 확인되고, 피해자의 옷차림이 단정하며, 낮 시간에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예비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 자극 예시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참가자

예비 연구의 참가자는 총 63명(여성 63.49%, 무응답 6.35%)이었고 연령은 평균 30.68세(표준편차는 6.07세)였다. 참가자들은 스노우볼링(snowballing) 표집을 통하여 모집되었으며, 예비 연구 참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참가자들은 연구자로부터 자료수집을 위한 링크를 전달받아 예비 연구에 참가하였다.

절차

예비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자발적으로 예비 연구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 참가자들에게 온라인 링크를 발송하였으며, 각 참가자들에게 16개의 그림 자극 중 하나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참가자는 각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통해 제시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경찰서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그 여성과 경찰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상황으로부터 추론되는 내용, 느낌 등을

1) 네 가지 속성을 두 수준으로 조작했을 때, 자극의 수는 총 16개(2⁴), 세 수준으로 조작했을 때 자극의 수는 총 81개(3⁴)이며, 참가자들은 유사성 평정을 위한 쌍비교(paired comparison), 형용사 평정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하므로 요구되는 반응의 수는 수준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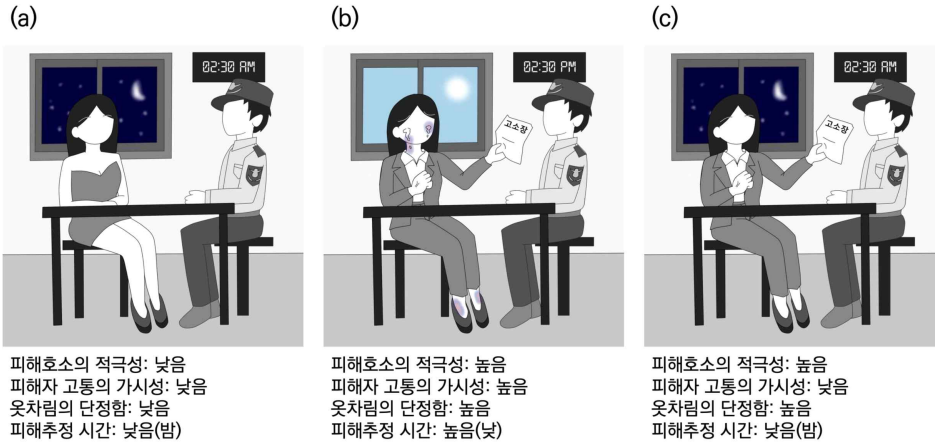


그림 1. 예비 연구에서 제시된 그림 자극 예시. 그림 1a에는 피해호소의 적극성,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옷차림의 단정함, 피해추정 시간의 네 요인 모두 ‘낮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 그림 1b에는 네 요인 모두 ‘높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 그림 1c에는 피해호소의 적극성과 옷차림의 단정함 요인만 ‘높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이 제시되었다.

가능한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연상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한 후 참가자들은 그림 자극에 묘사된 상황이 참가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는 장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1점(전혀 유사하지 않음)에서 9점(매우 유사함) 사이의 숫자로 평정하였다. 한 명의 참가자는 하나의 그림 자극에 대해서만 응답하였고 총 63명이 응답하였으므로 각 그림 자극에 세 명 또는 네 명의 자유연상 응답이 수집되었다.

그림 자극에 대한 자유연상 응답 분석결과

참가자들이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해 그림 자극에서 조작한 요인들을 활용하는지 확인하고 조작된 요인들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하고자 수집된 자유연상 응답을 범주화하여 관찰빈도를 산출하였다. 응답 내용의 범주화는 연구자 3인이 수행하였고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연구자 3인은 독립적으로 참가자들의 응답을 검토하고 다수의 응답에 언급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3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도출한 범주들 중 공통적인 범주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범주들을 도출한 경우 논의를 통하여 유사한 다른 범주와 통합하거나 포괄적인 새로운 범주를 구성하였다.

확정된 범주의 내용이 참가자의 응답에서 얼마나 관찰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각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평균적인 관찰빈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 3인이 도출한 범주와 확정된 범주의 범주명 및 각 범주의 관찰빈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범주화의 첫 번째 단계에서 각 연구자는 평균 12.7개의 범주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범주들을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13개의 범주들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범주들의 관찰빈도는 연구자 3인이 판단한 빈도의 평균으로 산출하였으며, 보수적으로 빈도를 판단하기 위해 보수적 아래는 버리고 정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자 3인의 판단 일치도(Intra-Class Correlation: ICC)는 .937로 매우 높았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림 자극을 보고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그림에 묘

표 1. 응답내용에서 도출된 범주, 확정된 범주 및 관찰빈도

번호	평가자1(16개)	평가자2(13개)	평가자3(10개)	확정된 범주	빈도 ^b
1	현재 시간	현재 시간	면담 시간	현재 시간	32(50.79%)
2	피해 발생 시간	피해 발생 시간	피해 시간	피해 시간	23(36.51%)
3	피해자 옷차림	피해자 복장		피해자 외모	31(49.21%)
4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 정보(직업, 나이)	피해자 직업	피해자 직업	15(23.81%)
5	피해자의 정서	피해자 감정 상태	피해자 정서	피해자 정서	24(38.10%)
6	피해자의 주체성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 태도	15(23.81%)
7	피해 장소	사건 발생 장소	피해 장소	피해 장소	7(11.11%)
8	피해자의 의도 추론	피해자의 의도 추론		피해자 의도	6(9.52%)
9	가해자에 대한 추론	가해자 신원 및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직업	가해자 관련 추론	11(17.46%)
10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	폭행 여부		피해자 상해 여부	24(38.10%)
11	폭행 상황에 대한 추론	폭행 상황에 대한 추론		폭행상황 추론	19(30.16%)
12	피해 반복 여부	피해 기간		피해 지속/반복 여부	3(4.76%)
13	신고 시점	신고 시점		신고과정	17(26.98%)
14 ^a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외모, 피해자에 대한 의심		면담 장소, 피해자 외형, 경찰관		

^a 도출된 범주의 내용이 평가자들 간에 상이하거나 중복되어 확정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

^b 예비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수는 참가자 수와 같으므로 가능한 최대 빈도는 63이고 각 범주의 빈도는 중복을 허용함.

사된 현재 시간(50.79%)이었고, 피해자의 외모(49.21%), 피해자의 정서(38.10%), 피해자의 상해 여부(38.10%), 피해 발생 시간(36.51%), 폭행상황에 대한 추론(30.16%), 신고까지의 경위를 포함하는 신고과정(26.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본 연구에서 그림 자극 제작에 사용된 특성들 즉, 피해호소의 적극성,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옷차림의 단정함, 피해추정 시간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해 추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형용사 선별

본 연구에서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하여 도출

될 피해자다움의 평가 차원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될 형용사를 선별하였다. 형용사 선별은 참가자가 응답한 내용 중 그림 자극 속 피해자의 정서나 상태에 대한 추론을 다른 내용으로부터 파악되었다. 형용사 선별에 사용된 방법은 응답 내용의 범주를 확정하는 과정과 동일하였다. 연구자 3인이 독립적으로 참가자들의 응답을 검토하여 응답에 포함된 형용사를 도출한 후, 다음의 기준을 사용하여 형용사를 선택하였다. 1) 그림 자극 제작을 위해 조작한 내용과 관련된 형용사와 2) 피해자의 정서, 태도, 외모 등을 묘사하는 형용사. 이 선택 기준을 충족한 형용사 중 의미적으로 유사한 형용사들은 통합하였고, 통합된 형용사와 공통적으로 찾아낸 형용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측

표 2. 응답 내용으로부터 도출된 형용사 및 선별된 형용사

번호	평가자1(15개)	평가자2(8개)	평가자3(12개)	선별된 형용사(8개)
1	주도적인	적극적인/소극적인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적극적인
2	주장이 강력한/의지가 강한	차별 의지가 있는	-	
3	위축된	-	도움이 필요한	
4	무서운/두려운/공포스러운	-	무서운	위축된
5	아찔한/놀란/경직된/긴장된	-	긴장한	
6	-	거짓인/진실된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7	밤늦게 근무하는	-	밤늦게 다니는	밤늦게 다니는
8	슬픈	고통스러운	울고 있는	
9	억울한	-	-	침울한
10	복장이 단정한/옷이 깔끔한	옷차림이 단정한/ 노출이 있는	복장이 단정한	외모가 단정한
11	침착한/진정한/편안한/덤덤한	-	차분한	
12	정서가 불안정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안정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차분한
13	-	-	편안한	
14	화난/분노한	-	화난/분노한	감정이 격한
15	감정이 격한	-	-	(화난, 분노한)
16a	가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피해자의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피해시간과 현재시간이 가까운 직업을 알 수 있는/알기 힘든		

a 도출된 형용사의 내용이 그림 자극을 통해서 추론하기 어렵거나 형용사 선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임.

정 문항으로 사용될 형용사들을 최종 선별하였다. 선별된 형용사는 ‘적극적인’, ‘위축된’, ‘거짓말하는’, ‘밤늦게 다니는’, ‘침울한’, ‘외모가 단정한’, ‘차분한’, ‘감정이 격한’의 여덟 개였다(표 2).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차원은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될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다움’을 추가하여 총 아홉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참가자

본 연구는 대학의 기관심의위원회 승인(IRB

No. ****-202205-HR-0101)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참가자모집시스템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개씩 짝지어 제시되는 그림 자극에 대한 유사성 평정 단계와 16개 그림 자극에 대한 형용사 평정 및 성폭력 통념 척도의 문항에 응답하는 자극평가 및 설문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데는 약 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참가 후 대학의 수업에서 인정되는 2크레딧을 부여받았다.

본 연구에는 총 240명이 참가하였고, 외국인 참가자, 자극에 대한 형용사 평정과 서열평정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주의점검 문항에 오답이 많은(세 개 이상) 참가자 65명, 유사성 평정 단계와 자극평가 및 설문 단계의 응답이 매칭

(matching)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총 17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175명 중 남성은 65명(37.14%), 여성은 107명(61.14%)이었고 무응답이 3명(1.71%)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0.95세(표준편차는 2.74세)였다.

그림 자극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작한 그림 자극은 예비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예비연구 참가자들이 의문을 제기한 내용)을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수정된 그림에서는 경찰관에서 조사받는 상황이라는 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경찰관 앞에 조사에 사용되는 노트북 그림이 추가되었고 예비 연구의 그림에서는 지나치게 일상적이지 않았던 피해자의 옷차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 자극의 예시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측정

유사성 평정²⁾

유사성 평정 자료는 피해자다움 평가에 사용되는 심리적 차원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유사성 평정에서 참가자들은 16개 그림 자극이 두 개씩 짝지어 무선적으로 제시되면 두 그림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1(매우 유사함)부터 7(매우 다름)까지의 척도상에 평정하였다.

2) 큰 숫자가 비유사성을 나타내므로 엄밀히 말하면 본 연구의 자료는 비유사성(dissimilarity) 자료이지만 두 자료는 분석과정에서만 다르게 취급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유사성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형용사 평정

형용사 평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16개 그림 자극 각각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정치를 수집하였다. 형용사 평정을 위해 아홉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화면 우측에 제시된 그림 속 피해자에 대한 인상과 제시되는 형용사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0(전혀 일치하지 않음)부터 4(매우 일치함)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였다.

서열 평정

서열 평정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작한 네 개의 요인 중 참가자들이 피해자다움에 대해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더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 순으로 서열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각 요인들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요인 1.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가?

요인 2. 성폭력 피해자가 침울함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표현을 하였는가?

요인 3. 성폭력 피해자가 밤늦게 외출했는가?

요인 4. 성폭력 피해자가 옷차림이 단정했는가?

성폭력 통념 측정

참가자들의 성폭력 통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Burt(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수정한 성폭력 통념 척도(rape myths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폭력 통념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통념으로 정의하며, 피해자의 성격,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경솔, 피해자의 강간 정당화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의 여섯 개 하위요소로 구성된 성폭력 통념을 측정한다. 참가자는 각 설문 문항에 대해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5(매우 동의한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였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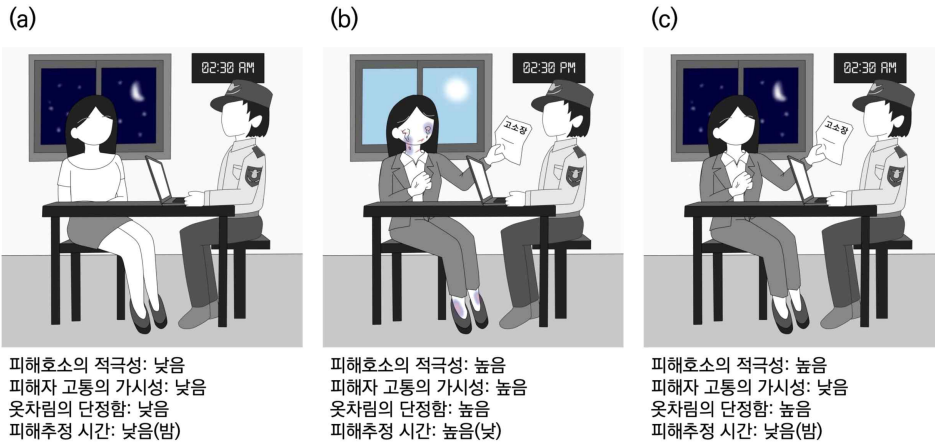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에서 제시된 그림 자극 예시. 그림 2a에는 피해호소의 적극성,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옷차림의 단정함, 피해추정 시간의 네 요인 모두 '낮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 그림 2b에는 네 요인 모두 '높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 그림 2c에는 피해호소의 적극성과 옷차림의 단정함 요인만 '높음' 수준으로 조작된 그림이 제시되었다.

일관성 지수(Cronbach's alpha)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모집시스템을 통하여 참가하기를 희망한 참가자들에게 참가링크를 발송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참가링크는 참가 동의 여부, 유사성 평정, 형용사 평정, 서열 평정 및 성폭력 통념 측정이 순서대로 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참가링크에서 동의서를 확인하고, 성별과 연령을 입력한 참가자들은 유사성 평정 단계를 위한 링크로 이동하였다. 이 링크에서 참가자들은 16개 그림 자극의 모든 조합에 대한 짝 비교를 수행하였으므로, 총 120번의 유사성 평정을 수행하였다. 유사성 평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들은 유사성 평정을 위한 링크를 닫고 다시 참가링크로 돌아와 16개 자극에 대한 형용사 평정(한 참가자는 16개의 그림 자극에 대하여 아홉 개씩 총 144번의 형용사 평정을 수행),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요인들의 서열 평정, 성폭력 통념 척도에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모든

응답을 마친 참가자들은 본 실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연구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다고 안내받은 후 참가링크를 종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R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개인차척도법과 퍼기의 분석에는 smacof 패키지가 사용되었다.

결 과

개인차척도법과 도출된 차원의 의미 해석

개인차척도법을 적용하여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해 고려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차원의 수를 다섯 개(본 연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차원의 수 + 1)에서 두 개까지 순차적으로 낮추어가면서 개인차척도법을 실시하였다. 개인차척도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차원이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차원이라면, 각 그림 자극의 공통공간 좌표와 피해자다움 평정치 간 상관이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통공간을 구성하는

표 3. 차원의 수에 따른 그림 자극에 대한 형용사 평정치(평균)와 차원값의 상관계수(N=16) 및 도면의 스트레스 값

차원	적극적인	위축된	거짓말 하는	밤늦게 다니는	침울한	외모가 단정한	차분한	감정이 격한	피해자 다음	도면 스트레스
1	.13	-.70**	.92***	-.04	-.93***	.36	.46	-.24	-.98***	0.086
2	.64**	-.18	-.05	-.01	-.09	-.06	-.73**	.74**	.25	
3	.82***	-.70**	-.05	-.02	-.35	-.08	-.49	.72**	-.01	
4	.02	-.05	.02	-.97***	-.05	.08	.05	-.01	-.12	
5	.01	0	-.34	-.23	.03	.91***	.28	-.02	-.01	
1	.13	-.70**	.92***	-.04	-.93***	.36	.47	-.24	-.98***	0.101
2	.98***	-.61*	-.07	-.02	-.30	-.09	-.80***	.97***	.15	
3	.03	-.06	-.02	.11	-.10	.13	.14	-.05	-.07	
4	.02	-.06	.06	-.93***	-.06	-.01	.03	-.02	-.13	
1	.13	-.70**	.92***	-.04	-.93***	.36	.47	-.24	-.98***	0.127
2	.97***	-.60*	-.08	-.01	-.30	-.12	-.8***	.97***	.15	
3	.03	-.07	.02	-.9***	-.08	.14	.12	-.04	-.14	
1	.13	-.70**	.91***	-.06	-.93***	.35	.47	-.24	-.98***	0.172
2	.94***	-.58*	-.13	-.01	-.29	-.01	-.74**	.92***	.14	

* $p < .05$, ** $p < .01$, *** $p < .001$

차원의 의미는 배치된 그림 자극들에 대한 인상이나 그림 자극에 대한 형용사 평정치와 차원값의 상관에 기초하여 추론될 수 있다. 지정된 차원의 수에 따른 도면의 스트레스 값(stress value)³⁾, 그림 자극의 차원값과 형용사 및 피해자다움 평정치 평균의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분석에서 첫 번째로 도출된 차원만 피해자다움 평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첫 번째 차원의 차원값이 커질수록 지각된 피해자다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98, p < .001$. 따라서 두 번째 차원부터는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었다. 다만, 세 번째 차원 이후의 차원들과 달리 두 번째 차원은 예비연구에서 선별된 특정 형용사와 일관된 관련성의 방향 및 유의성을 보여주었으므로 두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공통공간을 사용하여 각 차원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차척도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2차원 도면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원 1은 '위축된', '침울한'과 부적 상관관계(각각 $r = -.70$ 과 $r = -.9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짓말하는'과는 정적 상관관계($r = .91$)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원 2는 '적극적인', '감정이 격한'과 정적 상관관계(각각 $r = .94$ 와 $r = .92$)를 가지는 것으로, '위축된', '차분한'과 부적 상관관계(각각 $r = -.58$ 과 $r = -.7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값과 관련된 형용사들의 의미 및 그림 자극의 배치(그림 3)를 종합하여 차원 1은

3) 스트레스 값은 분석 결과 도출된 도면과 자료의 합치도를 반영하는 값으로 낮을수록 도면과 자료가 잘 합치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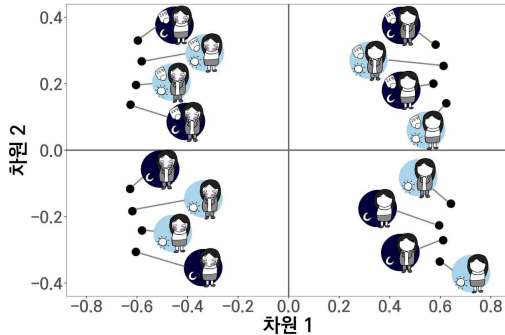


그림 3. 개인차척도법으로 도출된 2차원 공간상의 그림 자극 배치. 2차원 공간에서 그림 자극의 위치는 검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그림 자극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표현된 그림이 회색 선으로 이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조작한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위축된’, ‘침울한’과 관련이 높고, 이 차원에서 구분되는 그림 자극들에서 조작된 요인은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 여부이므로), 차원 2는 본 연구에서 조작한 피해호소의 적극성(‘적극적인’, ‘감정이 격한’과 관련이 높고, 이 차원에서 구분되는 그림 자극들에서 조작된 요인은 피해호소의 적극성 여부이므로)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2차원 공통공간의 스트레스 값은 0.172로 나타나 이 공간은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었다.⁴⁾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해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요인이 있다면 개인차척도법을 적용하였을 때 그림 자극의 조작에 사용되지 않은 요인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차원 1의 경우, ‘거짓말하는’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짓말하는’은 본 연구에서 조작하지 않은 요인으로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기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4) 이 도면의 스트레스 값(0.172)은 16개의 자극을 이용하여 두 개의 차원을 가지는 도면을 도출하였을 때 무선적인 자료(500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 값(random stress)의 95% 신뢰구간의 하한(평균보다 2표준편차 작은 값)인 0.246보다 작은 값이다.

그림 자극의 군집에 따른 일반인의 지각된 피해자다움

개인차척도법으로 파악된 2차원 공간의 네 개 군집(군집 번호는 군집이 위치한 사분면과 같음)에 따라 일반인들의 지각된 피해자다움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자극의 군집, 그림 자극 및 참가자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각 그림 자극에 대한 피해자다움 평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선형혼합효과 모형(linear mixed effect model)을 검증하되, 그림 자극의 군집은 고정변인, 그림 자극과 참가자는 무선변인으로 간주하였다. 분석 결과, 네 군집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된 피해자다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3, 12)=3.557, p<.05$. 구체적으로, 군집 2의 피해자다움 평균이 2.98(표준편차는 0.99)로 가장 높았고, 군집 3과 군집 4의 평균은 각각 2.52(표준편차는 1.12)와 2.38(표준편차는 1.19)이었으며, 군집 1의 피해자다움 평균은 1.93(표준편차: 1.06)으로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Tukey) 결과, 군집 2와 군집 1의 피해자다움 평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t=-3.237, p<.05$.

그림 자극의 군집에 따른 일반인들의 지각

개인차척도법으로 파악된 2차원 공간의 네 개 군집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네 개 군집에 대한 여덟 개 형용사 평정치를 비교하였다. 형용사 평정치는 그림 자극의 군집(고정변인), 그림 자극(무선변인) 및 참가자(무선변인)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선형혼합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군집에 따른 일반인의 형용사 평정치 프로파일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집에 따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형용사는 ‘위축된’과 ‘침울한’이었다. 그러나 ‘위축된’에 대해서는 군집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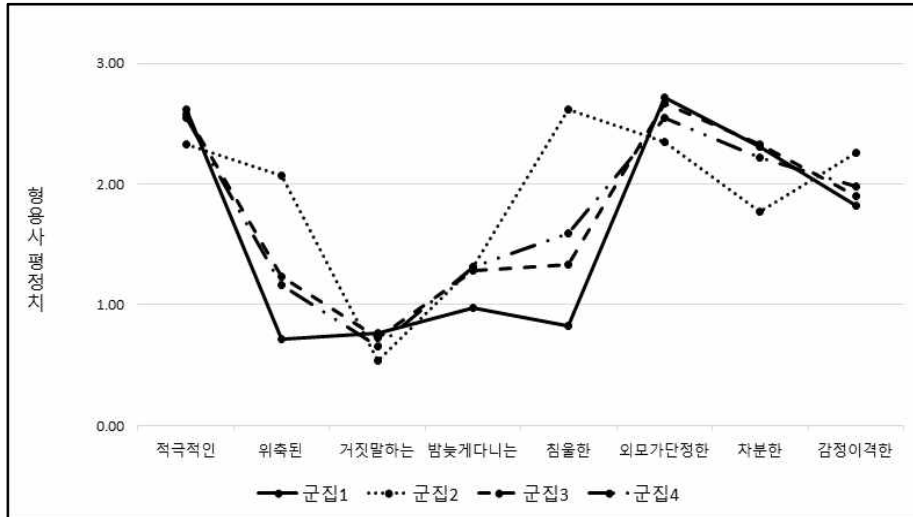


그림 4. 개인차적도법으로 파악된 2차원 공간의 군집별 형용사 평정치 프로파일(N=175)

($p=.263$), ‘침울한’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1에서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1 순으로 형용사 평정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76$). 구체적으로 군집 2의 평균이 2.62(표준편차는 1.153)로 가장 높았고 군집 1의 평균이 0.88(표준편차는 0.93)로 가장 낮았다, $t=-2.932$, $p=.053$. 그림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거짓말하는’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 간 차이가 있었다($p=.053$). 군집 2의 평균이 0.53(표준편차는 0.75)으로 가장 낮았고 군집 4의 평균은 0.66(표준편차는 0.83), 군집 3의 평균은 0.68(표준편차는 0.86), 군집 1의 평균이 0.79(표준편차는 0.91) 순으로 높았다, $t=3.181$, $p<.05$.

즉, 일반인들은 군집 2의 특성을 가지는 피해자들이 가장 침울하고 진실하며(거짓말하지 않음), 군집 1의 특성을 가지는 피해자들이 가장 덜 침울하고 거짓말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추론

5) 군집 1부터 4까지의 평균은 차례로 0.81, 2.07, 1.77, 1.17이고, 표준편차는 차례로 0.93, 1.34, 1.53, 1.06이었다. 평균차이가 가장 큰 군집 1과 군집 2의 평균차이(1.26)는 두 집단의 표준편차(각각 0.93과 1.34)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나머지 ‘적극적인’, ‘밤늦게 다니는’, ‘외모가 단정한’, ‘자분한’ 및 ‘감정이 격한’에 대해서는 모든 군집에서 유사하게 평정하였다.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과 차원 가중치

개인차적도법을 적용한 결과로 산출되는 개인의 차원 가중치는 개인이 각 차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반영한다. 따라서 개인의 차원 가중치와 개인의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이 관련되어 있다면, 성별과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라 피해자다움 평가가 달라지는 데 그 차원이 관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과 성폭력 통념 수준을 이용하여 차원 가중치를 예측하기 위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차원 1만이 피해자다움 평정치와 관련이 있었으므로, 차원 1의 가중치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차원 가중치는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168)=0.455$, $p=0.714$. 즉, 개인이 차원 1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성별이나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2차원 퍼기

본 연구는 피해자다움 평가에 고려되는 요인들과 각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같은 공간에 시각화하여 그 상대적 위치와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의 관련성을 추론해 보고자 서열평정 자료를 이용하여 2차원 퍼기를 수행하였다. 2차원 퍼기의 수행 결과 스트레스 값은 0.126이었으며, 순열검증(permutation test)⁶⁾ 결과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 자료의 스트레스는 무선자료의 스트레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및 성폭력 통념 수용도에 따른 도면을 그림 5와 그림 6에 각각 제시하였다.

다차원 공간에서 피해자다움 평가에 고려되는 요인과 개인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개인이 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과 개인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개인들이 평정한 요인들의 중요성 서열이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2차원 퍼기를 수행한 결과 많은 개인이 적극성(요인 1), 정서표현(요인 2)과 가깝게 위치하며, 남성의 경우

6) 순열검증은 비모수 검증법의 하나로 비복원 반복추출(자료-순열-의 재배치, permutation)을 통하여 표집분포를 구성한다. MDS의 합치도를 파악하기 위한 순열검증에서는 반복추출을 통해 '자극 수 x 차원 수'의 좌표로 구성된 행렬을 얻고, 각 행렬에서 스트레스 값을 산출한다. 따라서 순열검증은 반복표집 절차를 통해 얻어진 스트레스 값의 표집분포에서의 임계치와 원자료의 스트레스 값을 비교하는 검증이다. 이때의 영가설은 '스트레스 값은 무선적인 비유사성 순열로부터 얻어졌다'이다. 퍼기에 대한 순열검증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스트레스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판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Mair 등, 2016). 본 연구의 개인차척도법 분석에서 사용된 무선적 스트레스와 비교하는 방법보다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지만 본 연구의 개인차척도법 분석에서는 자료행렬의 특성상 적용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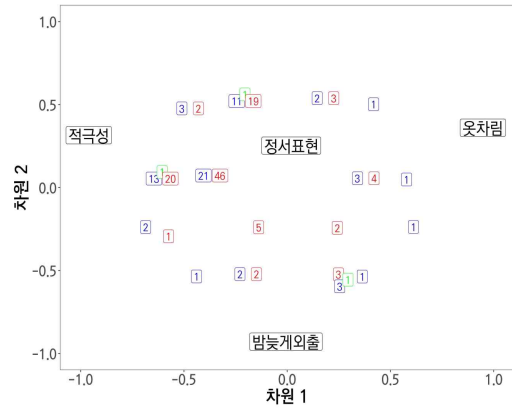


그림 5. 2차원 퍼기 공간에 배치된 네 요인과 개인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여성,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남성, 초록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성별을 응답하지 않은 개인들이며 숫자는 해당 위치에 배치된 개인들의 빈도를 의미한다.

소수의 개인이 요인 3(밤늦게 외출)과 요인 4(웃차림)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인과 개인의 유클리드 거리 평균은 적극성(0.75) 및 정서표현(0.5)과는 가깝고 밤늦게 외출(1.12) 및 웃차림(1.30)과는 멀어서 일반인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다움 평가에 피해자의 적극성과 정서표현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소수의 개인만이 웃차림이나 피해자가 밤늦게 외출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할 수 있었다.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상(상위 20%), 중(40~60%), 하(하위 20%)인 사람들만 선택하여 전체 2차원 퍼기 도면을 나타낸 결과(그림 6),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네 요인 주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성폭력 통념 수용도가 낮거나 중간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적극성(요인 1)과 정서표현(요인 2)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폭력 통념 수준이 높은 경우 요인 3(밤늦게 외출)과 요인 4(웃차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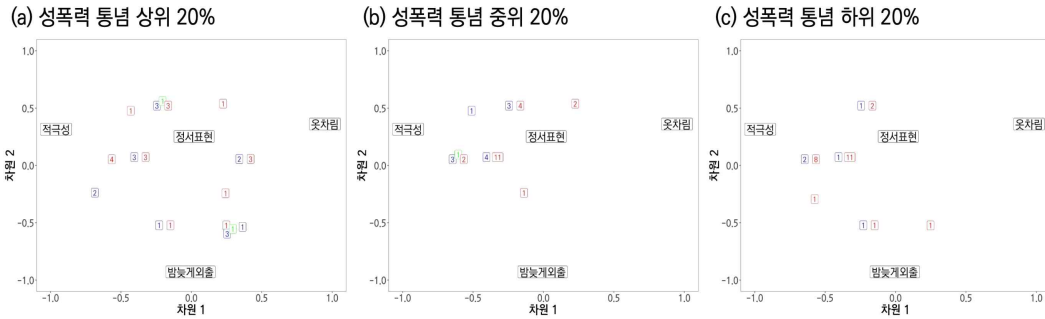


그림 6.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른 2차원 퍼기 공간의 네 요인 및 개인의 배치. 그림 6a는 성폭력 통념 상위 20%, 그림 6b는 성폭력 통념 중위 20%, 그림 6c는 성폭력 통념 하위 20%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배치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여성,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남성, 초록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성별을 응답하지 않은 개인들이며 숫자는 해당 위치에 배치된 개인들의 빈도를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차척도법과 퍼기를 통하여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차원)을 파악하고 다차원 공간에 배치된 그림 자극들의 군집에 대한 일반인의 지각을 비교하였다. 또한, 성별 및 성폭력 통념에 따른 개인의 차원가중치를 비교하고 2차원 공간에 시각화된 네 요인과 개인들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인들은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해자다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는 성별이나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서열자료에 대한 2차원 퍼기 결과에서는 소수의 응답자만이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다움의 유사성 평가를 위한 차원

유사성 평정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차척도법을 수행한 결과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차원의 수를 2-5개로 지정하여 개인차척도법을 수행하였을 때 지정된 차원의 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로 도출된 차원은 두 개였으며, 피해자다움과 관련성이 매우 높았던 차원 1은 ‘위축된’ 및 ‘침울한’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고, ‘거짓말하는’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침울하다고 지각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더 피해자답다고 느끼며, 덜 거짓말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정서표현(울거나 떨면서 이야기하는 모습 등) 수준과 피해 이후의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다움을 조작하였을 때 피해자다움을 다르게 지각하고(이예림, 박지선, 2021), 피해자가 보여주는 정서적 모습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Parratt & Pina, 2017)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판단자들은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Lonsway, 1996) 이 의심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추론한다(허민숙, 2018; Kaufmann et al., 2003; Klippenstine & Schuller, 2012). 본 연구의 결과도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이 다른 요인들(피해호소의 적극성, 웃차림의 단정함 및 피해추정 시간)보다 피해자가 거짓말하는지에 대한 지각과 더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도 이 추론이 타당함을 시사하는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다움이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박지선, 강은영, 2021, p. 19)에 비추어 본다면 이 추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실증 자료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다움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의 관계에 대한 혼재된 결과는 피해자다움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낳는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가 이미 부정적이어서 피해자를 의심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다움을 다르게 지각하는지, 두 변인에 공통된 제3의 변인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가 허위신고일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찰은 428명 중 32.7%였고(Schwartz, 2010), 경찰들 중 10%는 성범죄 무고의 비율을 51~100%로 추정하였고, 53%는 11~50%로 추정하였다(Page, 2008). 누군가 성범죄 사건의 무고율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폭력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한 의심이 무고율을 낮게 지각하는 사람보다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시각적 자극에 대한 해석이나 기억이 기존의 지식이나 태도, 관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하향적 정보처리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Gilbert와 Li(2013)의 연구 참조) 인간의 인지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의심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자다움과 관련 없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를 낮출 가능성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피해자다움 지각의 인과적 방향성(또는 그 관계에 개입하는 제3의 변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험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차원 2는 '적극적인' 및 '감정이 격한'과는 정적인 관련성, '차분한' 및 '위축된'과는 부적 관련성을 보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하게 피해를 호소하는지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었지만 피해자다움에 대한 평가와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차원 2는 '피해호소의 적극성'을

반영하지만 이 차원이 사람들이 피해자다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원 2는 의미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과는 부합한다. 그러나 이 차원이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성이 낮다는 점은 사람들이 높은 주체성(적극성을 포함)을 보여주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판단한다(정찬영 등, 2020)는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가능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선행연구들에서의 조작점검 측정치에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이 반영되어 조작된 변인(예를 들면, 피해자의 주체성)에 의한 피해자다움 지각의 차이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다. 조작점검 절차는 그 자체로 참가자들로 하여금 연구자의 관심이나 연구가설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으므로(Parrot & Hertel, 1999) 이 절차에서의 응답은 참가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면,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자다움을 평가해야 할 때, 참가자들은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나 기사에 묘사된 피해자의 모습에만 기초하여 피해자다움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참가자는 피해자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요인들(정서표현, 주체성, 과거 성매매 전력 등)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 요인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인들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피해자다움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작된 요인의 효과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조작점검 측정치에 반영된 요구특성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대한 개방형 질문을 적절한 시점에 추가하거나, 연구가설과 무관하고 참가자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른 질문(방해 문항, filler item)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개인차척도법으로 도출되는 차원들의 독립성(직교성, orthogonality) 때문에 두 번째 차원이 피해자다움과 가지는 관련성

이 모두 첫 번째 차원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형용사들과 피해자다움의 상관과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차원 1 및 차원 2 모두와 상관이 높은 형용사인 '위축된'은 피해자다움과도 (단순)상관($r=.66, p<.01$)이 높았다. 또한 '위축된'에 대한 평정치는 차원 2와 높은 관련이 있었던 '적극적인'과도 높은 (단순)상관($r=-.73, p<.01$)이 있었다. 그러나 이 형용사들과 차원 2의 부분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적극적인'은 차원 2와 관련이 없고($r=-.09, p>.05$), '위축된'과 '감정이 격한'만이 차원 2와 정적인 상관(각각 $r=.81$ 와 $r=.75$ 모두 $p<.05$)을 보였다. 부분상관계수는 차원 2와 피해자다움의 상관도 $-.71(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했을 때 그 관계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복수의 형용사들이 그들 사이에 또는 피해자다움과 공유하고 있는 변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이 변량은 차원 1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분상관계수에 기초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차원 2는 피해자의 적극성보다는 피해자의 감정표현(감정이 격한)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차원 2 역시 정서를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인차척도법을 적용한 결과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작한 다른 요인들은 지정된 차원의 개수나 측정된 형용사 평정치와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차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통념으로 언급되는 많은 요인 중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이 피해자다움의 평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요인들의 중요성은 사건 특정한 주변 단서들 또는 개인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자극의 군집에 따른 지각

개인차척도법으로 확인된 2차원 공간에서 배치된 그림 자극의 군집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각된 피해자다움은 군집 1과 군집 2에서만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집에 따른 형용사 평정치의 비교에서는 '거짓말하는'과 '침울한'에 대해서 군집 1과 군집 2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인들은 군집 2에 묘사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군집 1에 묘사된 피해자들보다 더 피해자다우며, 침울하고 더 거짓말하지 않는(진실한) 것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감정적인 표현이 피해자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허민숙, 2018; Kaufmann et al., 2003; Klippenstine & Schuller, 2012)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된 피해사건 발생에서 피해자의 원인제공(밤늦게 다니거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은 것 등) 여부나 피해자가 적극적이거나 차분한 모습인지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평정치는 그림 자극의 군집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 요인들은 묘사된 수준에 따라 군집화되지 않고 네 개의 군집에 골고루 퍼져있었다. 그 이유는 이 요인들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이 요인들의 수준을 구분하는 차원은 개인차가 커서 그 효과로서 상쇄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과 피해자다움 평가

개인차척도법 결과, 산출된 개인들의 각 차원 가중치 즉, 피해자다움 평가에 고려하는 요인의 중요도는 성별 및 성폭력 통념 수준과 관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지각된 피해자다움에 성차가 없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정찬영 등, 2020)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피해자다움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피해자 고통의 가시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피해자다움을 평가할 때 피해자의 고통이 눈으

로 확인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통념 수준에 따른 가중치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의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피해자의 고통의 가시성은 응답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이고 본 연구의 그림 자극에서도 가장 잘 드러나는 요인이므로 판단자들에게 사건에 대한 일종의 물질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림 자극에 대한 형용사 중 ‘거짓말하는’ 평정치는 남성에게서는 군집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p < .05$), 여성에게서는 군집에 따른 차이의 경향성만 관찰되었다($p = .08$). 이 결과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모습이어도 성별에 따라 피해자의 내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추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위에서 논의한바, 이 가능성은 실험을 통해서 인과적 방향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성폭력 통념은 타인에게 드러내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성폭력 통념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참가자들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폭력 통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의 내용(“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다.”,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성폭력을 당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통념 측정치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1999년도에 개발된 성폭력 통념 척도가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적절하게 측정해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의식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현시대의 성폭력 통념을 더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다면 추후 피해자 관련 연구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만약 성폭력 통념 측정치가 타당하다면, 성폭력 통념이 피해자다움 평가에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결과가 추후에도 재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열평정 자료를 이용한 2차원 퍼기 도면에서도 성별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남성 응답자들이 요인 4(‘옷차림이 단정했는가?’) 및 요인 3(‘밤늦게 외출했는가?’)과 가깝게 위치하였다(그림 5). 이것은 이 소수의 남성 응답자들은 피해자다움의 평가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피해자가 밤늦게 외출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는 대부분의 남성 참가자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요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성은 소수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 소수의 참가자들이 집중하는 요인은 적극적인 피해를 호소하거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피해 발생 이후의 반응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결정되는 옷차림과 밤늦은 외출이라는 점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피해자다움을 평가하는 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피해 발생을 의심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피해자다움 지각이 성차보다는 개인차 변인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과 판단자의 사전지식이나 관점이 피해자다움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폭력 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들 중 옷차림과 밤늦은 외출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점과 그 점에 성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그림 6) 또한 피해자다움 지각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의 탐색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직접 수집한 유사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한 많은 연구(예를

들면, 김육기, 2021; 이지범, 강원석, 2017; 정병국, 2012)은 근접성 자료(proximity data)를 사용한다. 근접성 자료는 자극 간 유사성을 반영하는 수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변환한 것이므로 모든 자극에 대한 쌍비교 없이도 얻을 수 있고 유사성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접성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손실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고자 유사성 자료를 직접 수집하였다. 유사성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참가자의 반응 수를 줄이면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해야 했고, 네 개의 요인을 두 수준으로 조작하여 16개의 자극만을 사용하였다. 즉, 자극의 수가 제한되어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현실의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학생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집단만의 특성일 가능성이 있는바, 추후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재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묘사한 그림 자극을 사용하였다. 기존에 피해자다움에 관한 연구들은 피해자의 특성이나 모습을 글로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예를 들면, 실험에 사용한 시나리오에서 “눈물을 흘리며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며 크게 감정적 동요가 없는 모습”으로 피해자를 묘사함으로써 피해자다움을 조작함, 박지선, 강은영, 2021). 글로 묘사된 피해자의 모습을 사용하는 경우 유사성 판단을 위해 글을 읽고 심상화(imagination)하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되며 개인에 따라 심상화된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사용하는 것보다 심상화 과정이 요구되지 않고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피해자의 모습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림 자극을 사용한 것이 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림으로 표현된 피해자 모습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실제 피해자보다는 참가자들에게 사실성이 낮게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생태학적 타당도는 다소 낮을 수 있겠다. 추후에는 자극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사진을 제작하거나 보다 사실적인 그림체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피해자다움 평가를 위해 어떤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 피해자 관련 연구 분야에 적용된 바 없는 개인차척도법과 다차원 평가를 적용하였다는 점, 일반인의 피해자다움 평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국내 연구 분야에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 연구라는 점, 논의를 통해 피해자다움 평가와 관련된 혼재된 연구결과와 가능한 원인을 신중히 고찰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저자 소개

JIN WEN JIE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대상의 목소리를 통한 사회적 지각, 집단 간 사과를 통한 관계 개선, 사회적 열세 집단에 대한 태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비인간화, 마음 지각, 집단 실체성, 및 피해자다움의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지연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인간의 시각 정보처리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나 도구에 관심이 있다. 특히 다차원척도법 등 다양한 자료분석 방법을 다루는 일과 디스플레이 장비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른 자극 제시 정확성을 비교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유화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학술연구교수,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와 강사로 재직 중이다.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판단 및 의사결정,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당사자에 관한 법률 및 형사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의사결정에서의 그 영향, 심리적 속성의 측정 방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배심원의 유죄판단 기준과 관련 변인을 수량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9). 2019 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 경향신문 (2010. 03. 23). 외제차 친절男, 연락처 묻더니 돌연 성폭행.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00323185729A>에서 2022. 03. 28 자료 얻음.
- 권인숙 (2015). 성폭력 피해에 관한 다양한 통념 비판.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pp. 3-43).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김민정, 권인숙, 김선영 (2017). 성폭력 피해의 치명성 낙인이 피해자다움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 폭력 후유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5(3), 117-139.
<https://doi.org/10.36220/kjv.2017.25.3.117>
- 김민정, 양정운 (2015). 성폭력 피해의 극복가능성: 피해, 생존, 그리고 성장. 우리가 말하는 피해자란 없다 (pp. 3-43).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https://doi.org/10.21193/kjspp.2007.21.3.004>
- 김보경, 김범준, 최중안 (2020).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309-327.
<https://doi.org/10.53302/kjfp.2020.11.11.3.309>
- 김옥기 (2021). 다차원척도법(MDS)을 활용한 스포츠 스타 선수 평판 포지셔닝 연구. 한국스포츠학회, 19(2), 599-608.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2(2), 171-183.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https://doi.org/10.15703/kjc.17.1.201602.187>
- 대검찰청 (2021). 2021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박광배 (2000). 다차원척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박지선, 강은영 (2021). 성범죄 피해자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 이화젠더법학, 13(1), 1-34.
<https://doi.org/10.22791/ewhagl.2021.13.1.001>
-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2), 77-96.
- 박형민 (2018). 성폭력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 형사정책연구, 29(2), 119-148.
- 양동욱,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https://doi.org/10.18205/kpa.2012.17.3.002>
- 이명신, 양난미 (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 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3(2), 149-197.
<https://doi.org/10.33949/tws.2012..2.005>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예림, 박지선 (2021). 권위주의 성격과 강간통념 수용도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 75-97.
<https://doi.org/10.53302/kjfp.2021.03.12.1.75>
- 이지법, 강원석 (2017). 다차원척도법(MDS)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활용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 이미지 포지셔닝 분석 - 20대 남성소비자를 중심으로. *신산업경영저널*, 35(1), 57-78.
<https://doi.org/10.30753/emr.2017.35.1.003>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3.
<https://doi.org/10.21193/kjspp.2014.28.2.002>
- 장미정, 조은경 (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2), 129-137.
- 정병국 (2012). 다차원척도법(MDS)을 이용한 하이드리드 카메라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0(2), 83-94.
<https://doi.org/10.18852/bdak.2012.10.2.83>
- 정찬영, 김현정, 김태경, 박상희 (2020).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인식: 주체성과 판단자 성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3), 167-194.
<https://doi.org/10.20406/kjcs.2020.8.26.3.167>
- 허민숙 (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한국여성학*, 33(3), 1-31.
<https://doi.org/10.30719/JKWS.2017.09.33.3.1>
- 허민숙 (2018).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피해자 전형성 위반 범죄로서의 성폭력 무고. *한국여성학*, 34(4), 69-97.
<https://doi.org/10.30719/JKWS.2018.12.34.4.69>
- 허선주, 조은경 (201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20(1), 381-415.
- 황정익 (2007). 범죄피해자보호와 경찰활동 개선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3), 405-434.
- Anderson, I. (2007). What is a typical rape? Effects of victim and participant gender in female and male rape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1), 225-245.
<https://doi.org/10.1348/014466606X101780>
- Ask, K. (2010). A survey of police officers' and prosecutors' beliefs about crime victim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6), 1132-1149.
<https://doi.org/10.1177/0886260509340535>
- Ayala, E. E., Kotary, B., & Hetz, M. (2018). Blame attribution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Effects of victim gender, perpetrator gender, and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3(1), 94-116.
<https://doi.org/10.1177/0886260515599160>
- Balemba, S., Beauregard, E., & Mieczkowski, T. (2012). To resist or not to resist? The effect of context and crime characteristics on sex offenders' reaction to victim resistance. *Crime & Delinquency*, 58(4), 588-611.
<https://doi.org/10.1177/0011128712437914>
- Benedict, H. (1993). *Virgin or vamp: How the press covers sex cr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Bollingmo, G. C., Wessel, E. O., Eilertsen, D. E., & Magnussen, S. (2008). Credibility of the emotional witness: A study of ratings by police investigators. *Psychology, Crime & Law*, 14(1), 29-40.
<https://doi.org/10.1080/10683160701368412>
- Bongiorno, R., McKimmie, B. M., & Masser, B. M. (2016). The selective use of rape-victim stereotypes to protect culturally similar perpetrat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0(3), 398-413.
<https://doi.org/10.1177/0361684316631932>
- Bosma, A. K., Mulder, E., Pemberton, A., & Vingerhoets, A. J. (2018). Observer reactions to emotional victims of serious crimes: Stereotypes

- and expectancy violations. *Psychology, Crime & Law*, 24(9), 957-977.
<https://doi.org/10.1080/1068316X.2018.1467910>
- Buddie, A. M., & Miller, A. G. (2001). Beyond rape myths: A more complex view of perceptions of rape victims. *Sex Roles*, 45(3), 139-160.
<https://doi.org/10.1023/A:1013575209803>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https://doi.org/10.1037/0022-3514.38.2.217>
- Cameron, C. A., & Stritzke, W. G. (2003). Alcohol and acquaintance rape in Australia: Testing the presupposition model of attributions about responsibility and bla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5), 983-1008.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3.tb01935.x>
- Campbell, B. A., Menaker, T. A., & King, W. R. (2015). The determination of victim credibility by adult and juvenile sexual assault investigato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1), 29-39.
<https://doi.org/10.1016/j.jcrimjus.2014.12.001>
- Capezza, N. M., & Arriaga, X. B. (2008). Why do people blame victims of abuse? The role of stereotypes of women on perceptions of blame. *Sex Roles*, 59(11), 839-850.
<https://doi.org/10.1007/s11199-008-9488-1>
- Carroll, J. D. (1972). Individual difference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In R. N. Shepard, A. K. Romney, & S. Nerlove (Eds.),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and applications in behavioral sciences*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 Carroll, J. D., & Chang, J. J. (1970). Analysi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multidimensional scaling via an N-way generalization of "Eckart-Young" decomposition. *Psychometrika*, 35(3), 283-319.
<https://doi.org/10.1007/BF02310791>
- Cassidy, L., & Hurrell, R. M. (1995). The influence of victim's attire on adolescents' judgments of date rape. *Adolescence*, 30(118), 319-323..
- Cohn, E. S., Dupuis, E. C., & Brown, T. M. (2009). In the eye of the beholder: Do behavior and character affect victim and perpetrator responsibility for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7), 1513-1535.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9.00493.x>
- Cook, B., David, F., & Grant, A. (2001).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https://www.aic.gov.au/publications/rpp/rpp36>
- Coombs, C. H. (1964). *Theory of Data*. New York: John Wiley.
- Dull, R. T., & Giacomassi, D. J. (1987). Demographic correlates of sexual and dating attitudes: A study of date rap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4(2), 175-193.
<https://doi.org/10.1177/0093854887014002004>
- Gilbert, C. D., & Li, W. (2013). Top-down influences on visual processing.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4(5), 350-363.
<https://doi.org/10.1038/nrn3476>
- Grubb, A., & Harrower, J. (2008). Attribution of blame in cases of rape: An analysis of participant gender, type of rape and perceived similarity to the victim.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5), 396-405.
<https://doi.org/10.1016/j.avb.2008.06.006>
- Grubb, A., & Turner, E. (2012).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 review of the impact of rape myth acceptance, gender role conformity and substance use on victim blam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5), 443-452.
<https://doi.org/10.1016/j.avb.2012.06.002>
- Hills, A. M., & Thomson, D. M. (1999). Should victim impact influence sentences? Understanding the community's justice reasoning.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7(5), 661-671.

- [https://doi.org/10.1002/\(SICI\)1099-0798\(199923\)17:5<661::AID-BSL369>3.0.CO;2-N](https://doi.org/10.1002/(SICI)1099-0798(199923)17:5<661::AID-BSL369>3.0.CO;2-N)
- Howard, J. A. (1984). The "normal" victim: The effects of gender stereotypes on reactions to victim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3), 270-281. <https://doi.org/10.2307/3033824>
- Johnson, J. D., Jackson, L. A., & Smith, G. J. (1989). The role of ambiguity and gender in mediating the effects of salient cogni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1), 52-60. <https://doi.org/10.1177/014616728915100>
- Jordan, J. (2001). Worlds apart? Women, rape and the police reporting proces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4), 679-706. <https://doi.org/10.1093/bjc/41.4.679>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Inc.
- Kaufmann, G., Drevland, G. C., Wessel, E., Overskeid, G., & Magnussen, S. (2003). The importance of being earnest: Displayed emotions and witness credibilit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1), 21-34. <https://doi.org/10.1002/acp.842>
- Klement, K. R., Sagarin, B. J., & Skowronski, J. J. (2019). Accusers lie and other myths: Rape myth acceptance predicts judgments made about accusers and accused perpetrators in a rape case. *Sex Roles*, 81(1), 16-33. <https://doi.org/10.1007/s11199-018-0950-4>
- Klippenstine, M. A., & Schuller, R. (2012).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Expectancies regarding the emotional response of a rape victim over time. *Psychology, Crime & Law*, 18(1), 79-94. <https://doi.org/10.1080/1068316X.2011.589389>
- Lens, K. M., van Doorn, J., Pemberton, A., & Bogaerts, S. (2014). You shouldn't feel that way! Extending the emotional victim effect through the mediating role of expectancy violation. *Psychology, Crime & Law*, 20(4), 326-338. <https://doi.org/10.1080/1068316X.2013.777962>
- Lonsway, K. A. (1996). Police training in sexual assault response: Comparison of approaches. Retrieved from <http://search.proquest.com/docview/304250218?accountid=7408>
-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 <https://doi.org/10.1111/j.1471-6402.1994.tb00448.x>
- Mair, P., Borg, I., & Rusch, T. (2016). Goodness-of-fit assessment in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unfolding.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1(6), 772-789. <https://doi.org/10.1080/00273171.2016.1235966>
- Masser, B., Lee, K., & McKimmie, B. M. (2010). Bad woman, bad victim?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victim stereotypicality, gender stereotypicality and benevolent sexism on acquaintance rape victim blame. *Sex Roles*, 62(7), 494-504. <https://doi.org/10.1007/s11199-009-9648-y>
- Maurer, T. W., & Robinson, D. W. (2008). Effects of attire, alcohol,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date rape. *Sex Roles*, 58(5), 423-434. <https://doi.org/10.1007/s11199-007-9343-9>
- McGregor, M. J., Wiebe, E., Marion, S. A., & Livingstone, C. (2000). Why don't more women report sexual assault to the police? *CMAJ*, 162(5), 659-660.
- Nitschke, F. T., McKimmie, B. M., & Vanman, E. J. (2019). A meta-analysis of the emotional victim effect for female adult rape complainants: Does complainant distress influence credibility? *Psychological Bulletin*, 145(10), 953-979. <https://doi.org/10.1037/bul0000206>

- Page A. D. (2008). Gateway to reform? Policy implications of police officers' attitudes toward rape.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3(1), 44-58. <https://doi.org/10.1007/s12103-007-9024-9>
- Parratt, K. A., & Pina, A. (2017). From "real rape" to real justice: A systematic review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belief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68-83. <https://doi.org/10.1016/j.avb.2017.03.005>
- Parrott, W. G., & Hertel, P. (1999). Research methods in cognition and emotion.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 61-81). John Wiley & Sons Ltd. <https://doi.org/10.1002/0470013494.ch4>
- Petty, R. E., Briñol, P., & Tormala, Z. L. (2002). Thought confidence as a determinant of persuasion: The self-valid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722-741. <https://doi.org/10.1037/0022-3514.82.5.722>
- Randall, M. (2010). Sexual assault law, credibility, and "ideal victims": Consent, resistance, and victim blaming.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 22(2), 397-433. <https://doi.org/10.3138/cjwl.22.2.397>
- Schiffman, S. S., Schiffman, S. B., Reynolds, M. L., & Young, F. W. (1981). *Introduction to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Academic Press Incorporated.
- Schneider, L. J., Soh-Chiew Ee, J., & Aronson, H. (1994). Effects of victim gender and physical vs. psychological trauma/injury on observers' perceptions of sexual assault and its aftereffects. *Sex Roles*, 30(11), 793-808. <https://doi.org/10.1007/BF01544232>
- Schuller, R. A., McKimmie, B. M., Masser, B. M., & Klippenstine, M. A. (2010). Judgments of sexual assault: The impact of complainant emotional demeanor, gender, and victim stereotypes. *New Criminal Law Review*, 13(4), 759-780. <https://doi.org/10.1525/nclr.2010.13.4.759>
- Schwartz M. D. (2010).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visiting fellowship: Police investigations of rape-roadblocks and solutions*. Rockvill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Sims, C. M., Noel, N. E., & Maisto, S. A. (2007). Rape blame as a function of alcohol presence and resistance type. *Addictive Behaviors*, 32(12), 2766-2775. <https://doi.org/10.1016/j.addbeh.2007.04.013>
- Sleath, E., & Bull, R. (2017). Police perceptions of rape victims and the impact on case decision making: A systematic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102-112. <https://doi.org/10.1016/j.avb.2017.02.003>
- Stewart, M. W., Dobbin, S. A., & Gatowski, S. I. (1996). "Real rapes" and "real victims": The shared reliance on common cultural definitions of rape. *Feminist Legal Studies*, 4(2), 159-177. <https://doi.org/10.1007/BF02167608>
- Strömwall, L. A., Alfredsson, H., & Landström, S. (2013). Blame attributions and rape: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lationship level.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8(2), 254-261. <https://doi.org/10.1111/j.2044-8333.2012.02044.x>
- Thapan, M. (1997). *Embodiment: Essays on gender and identity*. Oxford University Press.
- Torgerson, W. S. (1952). Multidimensional scaling: Theory and method. *Psychometrika*, 17(4), 401-419. <https://doi.org/10.1007/BF02288916>
- Van der Bruggen, M., & Grubb, A. (2014).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ing to rape victim blaming: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observ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on attribution of blame in rape cas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9(5), 523-531. <https://doi.org/10.1016/j.avb.2014.07.008>
- Winkel, F. W., & Koppelaar, L. (1991). Rape

- victims' style of self-presentation and secondary victimization by the environment: An experi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1), 29-40.
<https://doi.org/10.1177/088626091006001003>
- Workman, J. E., & Freeburg, E. W. (1999). An examination of date rape, victim dress, and perceiver variables within the context of attribution theory. *Sex Roles*, *41*(3), 261-277.
<https://doi.org/10.1023/A:1018858313267>
- Workman, J. E., & Orr, R. L. (1996). Clothing, sex of subject, and rape myth acceptance as factors affecting attributions about an incident of acquaintance rap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4), 276-284.
<https://doi.org/10.1177/0887302X9601400407>
- 1 차원고접수 : 2023. 01. 15.
수정원고접수 : 2023. 03. 14.
최종게재결정 : 2023. 03. 30.

An exploration of the psychological dimension for the evaluation of victim-likeness: Application of INDSCAL and multi-dimensional unfolding

WEN JIE JIN¹⁾

Jiyeon Jung¹⁾

Yuhwa Han^{1),2)}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Institute for Law Studies, Yonsei University

Although the perceived victim-likeness of sexual violence victims can affect people's attitudes and judgments toward sexual assault cases and the victims, little systematic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 This study applied the individual difference scaling (INDSCAL) and multi-dimensional unfolding, type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models, to data collected from 175 college students to find out factors that people consider significantly in evaluating victim-likeness. Specifically, the authors derived the four factors related to the victim-likeness perception from previous studies ('whether or not the victim appeal to the violence actively,' 'whether or not the victim's suffering is visible,' 'whether or not the victim's clothing is tidy,' and 'estimated time of the violence') and produced pictures describing the victims by manipulated those factors. The participants rated the similarity of victims in terms of victim-likeness by comparing the two pictures presented in a pair. The result finds that the participants considered whether or not the victim's suffering is visible to evaluate the victim-likenes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victims being clustered pictures in the two-dimensional space, the differences were found only in depicting the victim as 'lying' and 'calm.' Individuals' weights for the dimension of the visibility of the victim's suffering did not differ in both gender and the acceptance level of sexual violence myth. The multi-dimensional unfolding analysis using ranking data of the four factors' importance showed no gender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nts with a higher acceptance of the sexual violence myth showed to consider the clothing and late outing of the victim more significantly.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found that, regardless of gender and the level of sexual violence myth, whether or not the victim's suffering was visible contributed to the evaluation of victim-likeness, and the factor was related to assessing the victims' credibility.

Key words : victim-likeness, visibility of victims' suffering, sexual violence myth, individual difference scaling, multi-dimensional unfolding